

문화산책

박기복

영화감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미래형 AI 도시로 변모할 기세다. 아직 첫 삽을 뜨기도 전인데 전남광주 밤하늘에는 거대한 인공태양이 떴다. AI라는 황금가루가 지역 곳곳에 흩날리면서 기대와 흥분도 커지고 있다.

필자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1980년 제작된 영화 ‘부시맨’ 영상이 AI와 겹쳐졌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지만 정작 금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샌프란시스코가 물류·금융·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신의 선물’로 여긴 순수한 부족들은 소유와 욕망으로 공동체가 흔들린다. 문명의 편리함이 반드시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AI는 우리에게 금과 콜라병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과 산업,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지역의 예술문화 창작자들도 행정이 지원책을 마련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술문화 예산을 뺏튀기로 늘릴 일은 없을 것이고, 문화예술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을 알 리 없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사업대로 임하면서 각자 자립 경쟁을 모색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창작자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시민과 행정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필자는 그 새로운 발상의 하나로 ‘예술문화 비빔밥 영광로’를 제안하고 싶다. 전남광주의 예술문화 창작자들이 장르와

AI 도시 전환, ‘예술문화 생활민속박물관’ 제안

영역의 경계를 넘어 서로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와 미술, 음악과 공연, 영화와 영상, 공예와 국악, 서예와 애니메이션, 게임과 미디어아트, 그리고 AI까지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남광주 예술문화 생활 민속박물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술문화 생활 민속 박물관’의 개념은 근현대 시간, 기억, 추억, 역사라는 과거의 스타일과 문화 요소를 현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박물관에 지역의 예술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다. 박물관은 입장료와 공연, 전시 수익을 창작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진열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라야 한다. 근현대의 시간과 기억, 추억, 역사, 생활양식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가족이나 건물들이 집약된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결합하는 체류형 예술문화 공간이다.

낡은 간판과 전자기, 교복과 책가방, 오래된 가구와 생활용품, 자동차와 사진, 골목과 주택 등 한 시대를 상징했던 것들이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1970~80년대 생활문화부터 주거와 가족의 변화, 지역 문화와 사진, 미술과 공예, 국악과 서예, 연극과 영화, 미디어아트와 애니메이션, 게임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는 박물관’을 넘어 ‘살아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일이다. 견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공연을 보고, 작품을 사고, 사진을 찍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임지 역시 한 곳에 모든 시설을 집중하기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산형 모델을 검토할 만하다. 예컨대 화순 폐광지역은 산업유산과 연결한 ‘블랙골드로드’, 광주 북

구의 우차공원과 동구의 구 도청을 거점으로 한 총장으로 일대는 ‘오렌지로드’와 같은 테마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의 박물관 개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예술문화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과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에 필요한 시대별 공간과 소품을 제공하는 콘텐츠 렌털 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은 버려질 뻔한 기억을 미래산업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낡고 쓸모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AI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지역만의 고유한 자산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전남광주의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이라면, ‘예술문화 생활 민속 박물관’은 이 도시의 기억과 감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심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창작자와 시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사업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지,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지역과 창작자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인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 전문 예술문화 디자이너다. 그의 기획과 프로그램과 연출이 새롭고 매력적인 미래 박물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가 진정한 미래도시를 꿈꾼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를 어떻게 많이 유지할 것인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AI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결합해 전남광주만의 산업과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미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려 했던 기억과 추억과 역사 속에서 미래의 산업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남·광주의 예술은 박물관에 머물지 않는다

적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연구가 살아 움직이려면 창작으로 이어져야 하고, 창작이 지속하려면 다시 시장과 연결돼야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레지던시다. 세계의 예술도시는 대개 작가의 집적에서 시작했다. 예술가가 한 곳에 모여 오래 머물면 작품이 쌓이고, 작품이 쌓이면 비평과 전시가 따라오며, 그 뒤에 갤러리와 컬렉터, 기관과 자본이 움직인다. 작가가 먼저 머물고 창작의 밀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시장도 자리난다. 그런 점에서 레지던시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창작과 시장을 함께 여는 전략적 문화 인프라다.

전남·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진도·해남·강진·완도·신안 등 남도 곳곳에는 폐교와 빈집, 유휴 공공시설이 적지 않다. 이 공간들을 예술가가 장기간 체류하며 주민을 만나고, 시장과 마을을 걷고, 바다와 섬, 남도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몸으로 경험하는 창작자의 거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남·광주의 장소성이 작품으로 번역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레지던시 정책의 본질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현실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남미술관이 추진하는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교류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은 지역과 국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지던시 모델이다. 전남·광주와 프랑스의 작가들이 남도의 시장과 마을, 생활문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연구와 제작을 함께 수행하는 이 과정은 지역의 풍경과 기억이 동시에 예술로 다시 번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레지던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가가 머물고 작품이 생산되더라도 그것이 유통되지 못하면 생태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레지던시가 작가들 불러오고 작품을 생산하는 토대라면, 미술시장은 그 성과를 유통하고 축적하는 제도적 장치다. 결국 시장은 창작의 사후 단계가 아니라, 창작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생태계의 일부다. 따라서 전남·광주에는 국제 규모의 아트마켓이 필요하다. 그 거점으로는 여수엑스포단지가 가장 적합하다. 여수는 전시장과 컨벤션 기능, 숙박 인프라, 해양관광 자원, 국제 접근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국제아트페어와 문화콘텐츠 마켓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 갤러리의 단순한 판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에서 연구되고 창작된 작품이 세계의 미술관, 컬렉터, 기업, 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전남미술관이 연구와 전시의 축을 맡고, 레지던시가 창작의 기반이 되며, 아트마켓이 유통의 플랫폼이 될 때 비로소 연구·창작·시장의 선순환하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이제 전남·광주의 문화정책은 명명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정책에서 문화유산을 새롭게 생산하는 정책으로, 시설을 늘리는 정책에서 예술가가 머무는 정책으로, 전시를 여는 정책에서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의 예술가가 전남·광주에 머물고, 이 지역의 청년들이 그 순환의 중심에 설 때, 여향 전남과 빛고를 광주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져봐야 한다.

당의 통합을 이끌 리더십 역시 중요하다. 경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당정 관계와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어졌다. 당대표 뒤 뒤에도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것인지, 경쟁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가 향후 정국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호남권과 수도권에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권리당원 100만명 이상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근소한 격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 누가 선택받느냐는 최종 승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호남의 선택은 특정 후보 한 사람의 당락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이 어떤 리더십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역의 요구를 국정 중심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하는 선택이다. 후보들의 말보다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판단과 실천, 앞으로 감당할 책임을 냉정하게 살펴야 할 때다.

기고

이지호

전남미술관장



전남·광주의 문화적 자산은 이미 충분하다. 남도의 산과 바다, 섬과 들녘이 길러 온 수목과 남종화, 문화와 음악, 공예와 민속문화의 전통에 더해, 1980년 5월 광주가 남진 민주주의와 인권 의 기억 또한 이 지역만의 고유한 유산이다. 자연과 예술의 유산, 시민과 민주주의의 유산이 함께 살아 있다는 점이 전남·광주 문화의 가장 큰 힘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유산을 보존의 대상으로만 남겨두지 않는 일이다. 오늘의 문화정책은 축적된 유산을 오늘 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고, 그것이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져 다시 사회적 확산과 유통의 구조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 또한 여기에 있다. 행정의 통합만으로 문화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남도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문화권으로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유산이 연구와 창작, 순환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연구다. 전남미술관은 남도미술과 수목, 섬과 해양문화, 지역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의 시민문화와 5월 민주항쟁의 기록, 기술, 사진, 문학 텍스트 역시 축

취재수첩

당권 명운 진 호남, 선택은 어디로

이현규

정치부 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정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김민석 후보와 정경래 후보가 오차범위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선은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으로 향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돼온 핵심 지지 기반이다. 동시에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순간에는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경선에서 호남 표심이 단순한 ‘지역 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후보들의 호남 구애도 치열하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책임자임을 자처하고 민주당의 정당성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당원들이 살펴야 할 것은 누가 더 호남을 자주 언급하는지가 아니다. 정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면서 집권여당이 놓쳐서는 안 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군·민간공항 이전, 에너지산업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중앙정부와 여당의 협력 없이 풀기 어렵다. 차기 당대표가 호남 현안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사설

가뭄 확산, 안정적인 물공급·절약 절실

극한 폭염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이니 이젠 가뭄이 걱정이다. 지역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데다 농경지 가뭄 면적도 확산 추세다.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 등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광주·화순의 식수원인 화순 동북댐 저수율은 48.94%로, 90%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약 15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량이다.

전남 서부권인 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의 생활·공업용수원인 장성 평림댐도 저수율이 53.6%. 광주와 광양·여수·순천 등의 용수원인 순천 주암댐 저수율도 39.2%. 장흥, 목포, 무안,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의 생활·공업용수원인 장흥댐도 45.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농업용수도 그리 상황이 좋지 않다. 전남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1%보다 29%p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 농경지(27만4096ha)의 2.9%인 8074ha(논 7510ha, 밭 564ha)에 가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실제 피해 면적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폭염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가뭄·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17개 시군구에서 총 103.7ha, 축산 분야에선 19개 시군 218개 농가에서 가축 32만1000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폭염·가뭄 비상 대응 종합상황실’과 ‘농업용수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저수율·용수공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주암댐 등 주요 상수원 저수율을 관리하고, 관정·양수장·하천수 취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급수와 절수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농업용수도 인근 양수장을 활용해 공급하고 소방차·산불진화차·급수차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긴급 급수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가뭄 지역 농업용 양수기 면세유 추가 배정 등을 건의했다.

여름철 제1인 가뭄 장기화에 대비, 통합특별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민들도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나서야 한다.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 청년·기업 키웠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이 눈에 띈다. 2017년 처음 시작해 올해 10년째 된 이 사업이 청년의 꿈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키우는 전남광주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과 구인 기업을 연결해 청년이 기업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년은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과 직무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다.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형’ 사업이었다는 얘기다. 올해까지 10년간 지역 청년 8791명, 지역 사업장 571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청년취업 디딤돌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했다. 실제로 참여 청년의 일경험 종료 2개월 이내 취업률은 30.1%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여 청년 7940명 중 238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또 일경험 종료 6개월 이내 취업률은 50.1%로, 이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참여 청년 1824명 중 914명이 취업했다.

사업 성과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도 사례, 2020년 ‘지역사회 혁신정책 나눔터’ 혁신사례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일자리 분야 대표사례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이 크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청년과 사업장이 원활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게 참여 청년에게 조직 적응법, 재무관리법, 표현력·소통 능력 향상법 등을 교육하는 ‘공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과 사업장 간 소통을 돕기 위한 ‘드림 매니저’ 12명을 권역별로 배치해 참여자 상담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고 드림청년 모임인 ‘드림넷’을 통해 경험 공유와 소통,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득이나 구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성장의 기회를, 지역 기업에는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전남지역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령인	차재진	사 장 정임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